



News Letter

January 2009 _ 제9호

<http://uit.dongseo.ac.kr>



09

HOME

NEWS

STORY

VIDEO

FILE



동서대학교 유비쿼터스 IT전문인력양성사업단

동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부경대학교 전기제어공학부, 경남정보대학 컴퓨터정보계열

누리사업은 지방대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업

안녕하세요?

'유비쿼터스 IT' 분야에 특성화된 우리사업단은 교육부분, 국제화부분, 산학협력부분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교육과학부의 4차년도 연차평가를 통하여 "본 사업단은 본 사업의 하나로 국제자격증취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난 4년간 CCNA, CCNP 자격증을 550명이 취득하고 최고급의 CCIE자격증도 13명이 취득하는 성과를 보임. 또한 협력대학과 중심 대학이 2+2+2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고교 프렌드십 프로그램이나 참여교수 관련업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임.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infra구축 우수하며, 참여대학간의 공동운영교과목, 공동 취업 캠프 등 연계 사업이 우수해 보임. 산학협력실적으로는 국내특허 출원 19건(동서대 18건, 부경대 1건), 기술이전 사업화 4건 수입료 6백만원 등으로 실제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참여 교수, 학생 및 사업단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급 자격증의 경우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최고/최다 수준이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13명의 CCIE 취득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실력있는 네트워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삼성그룹, SK, KT, 쌍용 등의 대기업과 시스코 파트너십 회사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유비쿼터스 특성화 4개 트랙은 '시스코 네트워크/보안 트랙', '모바일 트랙', 'RFID/USN 트랙' 그리고 'u-임베디드 트랙'이 있으며, 이 중에서 '시스코 네트워크/보안 트랙'은 국내 89개 시스코 파트너회사와 연계된 시스코 국제 네트워크 교육과정을 정규 교과목으로 수용함으로써 배출 인력이 시스코 파트너회사에 우수 사원으로 취업하는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100여명의 졸업생들이 시스코 파트너회사에 취업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트랙'을 비롯한 나머지 u-특성화 트랙에서도 구미·대구 삼성 모바일 상용화단지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졸업생에 대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통계에 의하면 누리사업을 통한 성과로서 지방대학의 재정이 크게 향상되었고, 또한 누리사업 지원 학부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 충원율과 교수확보율, 우수 신입생 증가, 그리고 정원조정으로 인한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누리사업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정부와 부산시, 학교 행정당국에 감사드리면서, 그 보답으로써 "열정과 창의적인 사업수행"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장
동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이 훈 재 교수



참여교수 동정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교수님들!

우리 학부 무선센서네트워크응용 u-헬스케어기술개발 BK21 사업팀 참여교수인 이훈재 교수, 임효택 교수, 석현태 교수 등 3인의 교수 모두가 탁월한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최근 세계 3대 인명사전에 각각 등재되었다. 이훈재 교수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정보 보안 전문가로 미국의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9년판 및 미국인명연구소(ABI)에서 발간하는 'Great Minds of the 21st Century' 등에 동시에 등재되었다. 아울러 임효택 교수는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모바일 기기용 가상스토리지 기술 전문가로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9년판 및 영국의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BC)에서 발간하는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및 '2000 Outstanding Scientists' 등에 각각 등재되었다. 한편, 석현태 교수는 국제적인 데이터마이닝 전문가로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9년판, 그리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에서 발간하는 'Top 200 of the BC' 및 미국인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500 Greatest Geniuses of the 21st Century' 등에 동시에 등재되었다.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후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및 미국인명연구소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을 편찬하는 곳으로 매년 탁월한 업적을 쌓은 인사들을 선정하여 등재하고 있다.



세계적 정보 보안 전문가
이훈재 교수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등재확인 서신 (이훈재 교수)



국제적 저장기술 전문가
임효택 교수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등재확인
서신 (임효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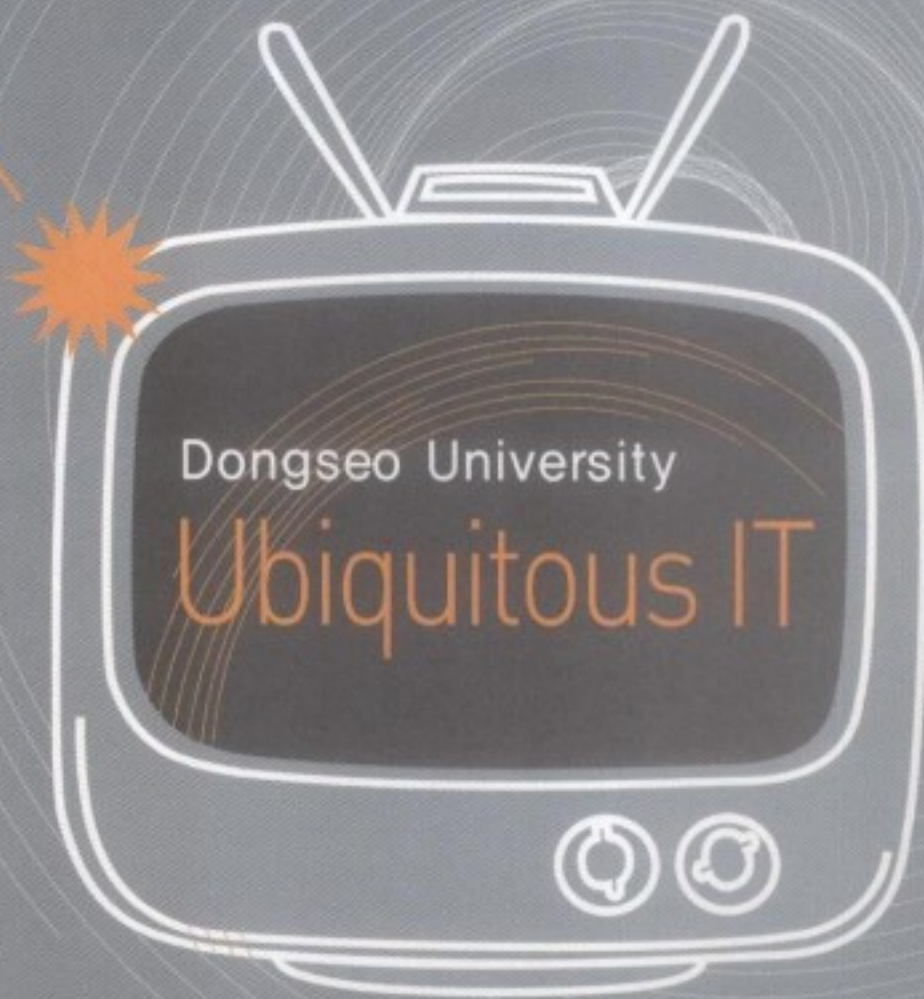
국제적 데이터마닝 전문가
석현태 교수



석현태 교수 영국 국제인명선배(IBC) 등재 :
TOP 200 of the IBC



석현태 교수 미국인명연구소(ABI) 등재 :
500 Greatest Geniuses of
the 21st Century



재미있는 생활 속 IT 이야기



이훈재 교수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장

“선조들의 우수과학기술이 나와 통한다(리)”

“우리는 외세의 침략을 창과 방패가 아닌 높은 경전의 힘인 팔만대장경으로 극복하려 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목판 인쇄술에 관한 세계 최고 오래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금속활자본에 관한 최고 오래된 백운화상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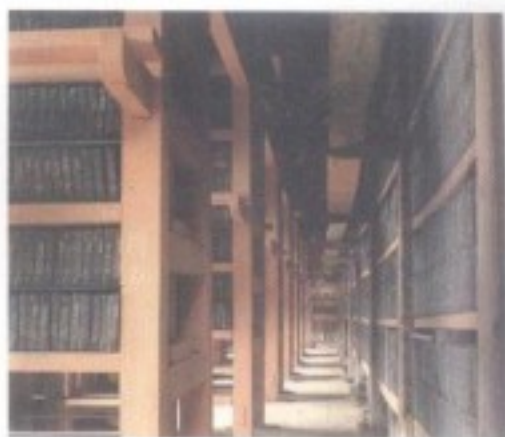
— 한국의 유산 21가지 (이종호 박사 제에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은 거란병의 침입을 불법으로 피하고자 고려 현종과 문종시대에 만들어진 1,076종 5,048권인 초조대장경으로, 현재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 봉안되었다. 그 후 몽고군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하여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만들고 영남 진주에 분사를 설치하여 고종 23년(1236년)에 시작하여 고종 38년(1251년)에 완성된 1,513종 6,844권 84,685매 국보 111호를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강화도 선원사에 봉안되었다가 조선 태조 때 서울 지천사를 거쳐서 현재 해인사에 보관 중이다.

팔만대장경은 경판 한 장의 무게가 대략 3.5kg으로 어림잡아서 전체 280톤의 무게가 나가며, 조선 초에 경판을 한양에서 해인사로 옮기는데 2000여명의 군인들이 호송하였고, 많은 불자 승려들이 독경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전하고 있다고 한다. 대장경 판 한 장의 크기는 가로 72.6 cm x 세로 26.4 cm x 두께 3 cm 정도이며, 글자는 대체로 23줄 x 14글자씩 들어간다. 전체 글자수는 대략 27,268,570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 공인 1명이 1일 1면을 제작한다고 하면, 30명의 각자공이 16년 동안 오로지 팔만대장경 판 제작에 매달린 결과가 나온다. 급하게 사는 현대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인 장경판전은 입지조건과 과학적, 기술적인 처리로 경판을 750년이 넘도록 온전히 봉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판전건물이 자리 잡은 위치, 건물배치와 좌향, 건물구조와 창호처리, 판가(板架)구조, 경판배열 등의 측면에서 통풍이 잘되고 일조량도 적당하며, 목판을 보존하는데 최적의 조건인 항온, 항습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전건물이 자리 잡은 곳은 해발 1,430m인 가야산의 중턱인 655m 되는 고도이고, 건물은 서남향으로 앉아 있다. 판전 건물에는 자연적으로 기후 조절이 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 판전 일곽의 중심이 되는 건물인 수다라장전, 법보전 두 건물 각 벽면에는 아래위로 두 개의 창을 이중으로



팔만대장경 장경판전 내부모습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본 무구정광다라니경



내어 아래 창과 위 창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건물의 전면 창은 위가 작고 아래가 크며, 뒷면 창은 아래가 작고 위가 크게 되어 있다. 이것은 큰 창을 통해 건조한 공기가 건물 내부로 흘러 들어오게 함과 동시에, 그 공기가 될 수 있으면 건물내부에 끌고

루 분포되게 한 후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판전 내부는 흙바닥으로 석회가 혼합된 층, 기와와 돌조각, 목탄 알갱이 층, 숯 층 등 3층 구조로 바닥을 처리함으로써 실내온도가 높을 때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할 때는 습기를 내뿜으며 자연적으로 습도가 조절되도록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인쇄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쿠틀베르크의 인쇄술이 천년의 세기적 발명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시대인 700~750년경 김대성이 경주 불국사 석가탑을 세우고 탑속에 넣은 「무구정광다라니경」은 최초 목판 인쇄본으로 (1966년에 발견됨)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770년 경에 인쇄한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의 기록을 20~70년을 앞서는 최고 기록이다. 또한 세계 최초 금속활자로 서양의 금속활자본 쿠틀베르크보다 200년 이상을 앞선 「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 원명은 「백운화상초목불조직지심체요절」)의 간행은 (상·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재 (하)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2001년 9월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정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최다 필만대장경의 경판 제작, 세계 최초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다라니경, 그리고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통하여 현재의 컴퓨터-휴대폰-DMB-Wibro 등 새로운 IT 인쇄기술로 이어져 내려오는 고유의 손맛을 느끼게 한다. 이 얼마나 자랑스런 일이며, 현재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IT 기술, 반도체 나노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로 선조들에 대한 숙연한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